

| 독서, 문학 실전 칼럼 8편 |

칼럼 선별집

2025 수능 대비

Cogito Ergo Sum

목 차

I. 독서

- (1) 국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 - 독서편 4p~12p
- (2) 실전에서 비문학 읽는 법 - 2022학년도 수능 헤겔 지문 ver. 14p~22p
- (3) 6분간 브레턴우즈 지문에서의 사고 과정 24p~38p
- (4) 지문을 읽는 순간 문제는 이미 풀려 있어야 합니다. 40p~52p

II. 문학

- (1) 웬만하면 문학을 20분 내외로 푸는 법 54p~73p
- (2)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Fin. 75p~90p
- (3) 극단적 시간 단축 - 문학편 92p~101p

III. 독서 & 문학

- (1) 수능 국어 한 문제 더 맞힐 수도 있을 글 103p~115p
-

-

-

국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

-독서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은 정말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던 주제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국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어가 기출 분석할 게 뭐가 있음?"

"난 평가원스럽다는 말 자체를 납득할 수 없음."

모두 실제로 봤던 글(또는 댓글)입니다.

아마 제 칼럼을 줄곧 보셨던 분이라면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독서 / 문학 중에 독서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기출 분석은 정말 필요없는 것이고,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걸까요?

1. 우리가 국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

기출 분석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어차피 수험생 입장에서 글을 한 번 읽고 글의 구조나 선지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수생이라고 해봐야 5년 6년 정도일 텐데, 수능을 많이 봤다고 해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썼던 독서 공부법에 나온 내용은 뭘까요? 갑자기 제가 했던 이야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기출 회독에 시간을 많이 투자(재수 10회독, 삼수 33회독)했고, 언제나 반복되는 공통점이 보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독서 공부법 (1)에서 제시한 독법은 언제나 적용시킬 수 있으며, 독서 공부법 (2)에서 다룬 문제 유형에서 벗어난 문제는 출제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냥 많이 봤을 뿐입니다.

수험생이 분석 의도를 갖고 기출을 조목조목 뜯어본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대원칙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보되, 공통점이 무엇인지만 잘 파악해보자.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다룬 '평가원스러움' 역시 기출 회독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2. 독서 기출 분석의 의미

솔직하게 말해서 지문에 제시된 이야기를 공부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의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에 필요한 독법의 확립, 발문과 선지의 분석**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독서 공부법 (1), (2)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22수능이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또 지문 자체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문이 매우 버거운 느낌이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함에도 "나는 쉬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쉽게 느꼈지만 그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문의 느낌이 달라졌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2수능 이전에 당장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9 <점유와 소유> 지문, 2009 <삼변측량(비콘)> 지문, 2109 <행정입법> 지문, 2111 <예약> 지문등이 있네요. **이 지문들의 공통점은? 모두 '압축적 독해'를 요구하는 지문**이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지문과 차량 영상 지문은 당연히 이러한 유형의 지문에 해당하고, 헤겔 지문 역시 주제통합치고는 압축적 독해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셋 다 압축적 독해 느낌으로 출제된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거나, **예측이 불가능했던 지문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기출을 보며 공통점을 찾는 식으로 분석이 '되었다면'**, 이번 수능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들어갈 이야기지만, 독서 공부법 (1)을 썼을 당시에 20 수능 지문이니까 그러한 독법이 쉽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22 수능 헤겔 지문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출 분석하라는 말을 듣고, **헤겔 지문에서 헤겔과 대화를 나누려는 멋진 시도를 하고 싶은 분은 철학과에 진학**하시면 됩니다. (저는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도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능 국어 독서에서 깨달을 부분은 그런 게 아니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독법 내에서 모든 부분이 설명 가능합니다.

(1) 대비되는 짝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A와 반(反)A를 제시했는데, 대비되는 짝이 아니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명확하게 대조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뉘앙스는 몰라도 정립과 반정립은 서로 '대비되는 짝'이겠죠.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 표상 · 사유이다.'

예술 / 종교 / 철학이 직관 / 표상 / 사유에 각각 대응합니다. 즉, 세 쌍의 '대비되는 짝'을 짝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라는 문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대비되는 짝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죠. 저 문장이 뜻하는 바는 지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에 정반합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술-종교-철학

직관-표상-사유

정립-반정립-종합

이게 다였고, 이 구조만 머리에 넣고 문제를 풀었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2)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난해했으며 학생들을 좌절시킨 부분은 1문단에 제시된 마지막 여섯 줄입니다. 평가원은 글을 못 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이해하지 못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것은 변증법으로' 아닌가요? 말이 난해하든 말든 나만의 방식으로 읽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다음 문단에 나온,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 떠올릴 생각은?

'아니 모든 것을 변증법으로 다뤘으면 미학도 변증법으로 가야지 ㅋㅋ' 겠죠.

그럼 변증법적 체계성을 갖춘다는 말을 제시하는, 모든 난해한 문장은?

'나만의 말'로 바꾸면 그냥 정반합을 적용하자!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한 영역을 가리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절대 정신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저러한 개념어는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말로, 따옴표를 이용해 대놓고 중요한 말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한 영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절대"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니, 그 자리에서 곧바로 외워'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말을 스스로 납득했으니까요. 시험장에서 지문의 내용을 나에게 맞춰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에게 납득시켰습니다. 수기에도 나와 있듯,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수능 지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3)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

개념어라고 했지만, 꼭 개념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제가 이런 말을 만든 걸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2)에서 다뤘던 문장인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개념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다시 써 보는 겁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고,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이건 어떨까요? '예술은 그(헤겔)에게 미학의 대상이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또, '종교와 철학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라는 말도 맞겠네요.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제는 느낌이 올 겁니다.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다.'라는 말이 나와야겠네요. 물론 저렇게 바꾸고 추가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념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모르긴 몰라도 일단 헤겔 입장에서는 이념을 절대적 진리라고 봤네?"처럼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했던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한참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이번 수능에서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활용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알아야 할까요?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출을 볼 때는 이미 나와 있는 지문과 문제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물어볼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미출제 요소' 생각하기.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바로 나와야 합니다.

중화 상태는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4) 배경 지식 활용하기

지겹도록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헤겔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배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변증법 = 정반합입니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이기도 하지만, 변증법 그 자체를 정반합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정반합을 통해 도출된 합(合)은 다시 정(正)의 입장이 되어 또 다른 반(反)과 대립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대립 -> 도출, 다시 대립 -> 도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논리로 설명하는 게 변증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딱히 지문에 쓰이지 않았지만, 지문을 볼 때 '익숙함'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좀 쉬운 내용입니다. "철학하면 당연히 사유지ㅋㅋ"이라는 게 시험장에서 떠올린 나만의 말이었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이해하면 더는 설명이 필요 없죠.

의문이 살짝 들 겁니다. 철학 -> 사유는 상식 아닌가?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식 = 배경 지식입니다. 제가 걸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배경 지식일 이야기들이 누군가 에겐 상식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금리, 환율, 경상 수지 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배경 지식이었을 테고, 브레턴우즈 지문이 그래서 논란이 있었겠죠. 하지만 초중고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이 풀 수 있는 선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는 교육과정 지침서의 내용 자체가 제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것도 나만의 말로 바꾸면? 그냥 상식 선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정시로 방향을 트는 대부분 학생이 초중고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배경 지식으로 설명합니다. 배경 지식 칼럼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 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이 부분도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죠.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라는 말을 보고 저는 **동굴에 그려진 벽화** 등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 떠올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틀릴 텐데, 잘못 떠올리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에 더해서 예술-종교-철학으로 이어질 때 종교는 덩그러니 중간에 왜 있을까요? 저는 **중세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할 시기이고,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까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국 철학이 최고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지문에서 제시한, 철학이 완숙 단계에 있다는 말은 당연히 이를 의미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읽는 내내 **"그럼 전시회는 뭐야? 설명이 다 쓰여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나)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는 당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생각하면, (나)에서 제시한 **"사실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하여 설명되지 않아?"**라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어떻게 예술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2109 주제통합 지문에 나온 것처럼 작품 감상 태도가 객관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관적이어야 하는지 토론을 할 수도 있겠으나 핵심은 그게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배경 지식은 언제나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쓰다 보니 헤겔 지문은 배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배경 지식**이었을 테고. 다시 말하지만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3. 평가원스러움

정말 논란이 많은 주제죠. 저는 '평가원스럽다.'는 느낌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추상적인 부분이다 보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류가 모여 살게 되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체외 기생충을 옮기는 일이 흔해졌다.** **털충이 퇴화한 이유는 바로, 체외 기생충이 질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체외 기생충에는 빈대나 벼룩 등이 있다.**

위 문장을 평가원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체외 기생충의 빈번한 전파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빈대나 벼룩 등 질병을 일으키는 체외기생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털충이 퇴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혜음 모의고사 독서 지문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체외 기생충의 빈번한 전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빈대나 벼룩 등 질병을 일으키는 체외기생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털충이 퇴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처음에 보여드린 보라색 문장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마 다시 쓴 문장이 훨씬 평가원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슬직히, 글 자체를 읽기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가원스러운 느낌이 뭘지 정리해볼까요.

콤마(,)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긴 문장을 제시하고
조개도 될 문장을 하나로 써서 호흡을 길게 만들고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죠)

쉬운 단어를 뱉두고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며
~의, ~적인, ~하는 것, ~에 대한(관한), ~를 통해 ~함에 있어서 와 같은 말이 불필요
할 정도로 많고
쓸 데 없는 피동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이 글을 읽고 나서 기출 지문을 아무거나 찾아서 풀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 '평가원체'라고 부릅니다. 이 느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죠. 난해한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간단한 문장으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니까요.

검토할 때도 수정 직전에 항상 하는 말이, "문장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 평가원은 글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입니다. 혜음 모의고사 비문학이 나름 좋은 평을 받았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게 무슨 '감각적으로 직관이 들어와야 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사실 인강은 듣지도 않는데 얼마나 시끌시끌하면 저같은 사람도 알까요ㅋㅋ)

어쨌거나, 이런 특징을 수험생이 의도를 가지고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봤을 뿐입니다. 선지와 발문에서도 평가원스러움을 찾을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독서 문학 선택과목 모두 '평가원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이 길어지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해야 한다는 말에 휘둘러 불안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러한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 덧붙이자면, 어떤 글을 쓸 때 위에 나온 평가원체를 최대한 덜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글 쓰는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소서 침삭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정시로 대학갔는데 자꾸 자소서 봐달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참 과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신기한 건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거..)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211

ver. -

실전에서 비문학 읽는 법(1)

- 2022학년도 수능 헤겔 지문 ver.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예고드렸던 독서 공부법 칼럼을 쓰게 되었네요.

이 칼럼은 제가 처음으로 썼던 글이자,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글을 22수능에 맞추어 다시 쓴 것입니다. 지금 다룰 내용은 독서 파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문학을 읽는 법이자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연초기도 해서 20수능 비문학, 그러니까 좀 쉬운 지문을 가지고 글을 썼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이건 22수능에 적용 안 되는 거 아님?"같은 댓글을 달지는 않으셨지만, 이러한 독법이 20수능, 22수능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걸 보여드리려 합니다. 물론, 다가올 23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겠지만,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바꿔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칼럼 및 헤겔 지문 전체 설명 링크

: <https://youtu.be/iHQmgOTuE98>

I. 7가지 독법을 기억하자

(1) 대비되는 짝 짝기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이 말은 제가 고3때 언젠가 들었던 말입니다. 대비되는 짝을 짝자. 무슨 말일까요. 정립과 반정립의 경우, A와 반A의 형태이므로, 당연히 '대비되는 짝'입니다. 저는 대조의 대비와 대응의 대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는데, **정립과 반정립은 '대조의 대비'**겠죠.

그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도?
내부 - 외부의 대비되는 짝이겠네요.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㉞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이번에는 '대응의 대비'입니다. 이걸 좀 쉬웠던 게, 예술 / 종교 / 철학에 각각 직관 / 표상 / 사유가 대응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쉬워도 이걸 짚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㉜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㉝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여기서 외면성 - 내면성, 객관성 - 주관성은 '대조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외면성 - 객관성과 내면성 - 주관성은 '대응의 대비'겠죠.

(2) 맥락상 동의어 찾기

사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유기적 독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직관적인 말이 없을까 하다가 맥락상 동의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㉞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예술 / 종교 / 철학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고, 각각 직관 / 표상 /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이라는 말은, 위의 말들과 '맥락상 동의어'가 되겠죠.

(3)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배경 지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시간 내에 독해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나만의 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 지문에 나온 부분을 모두 짚겠습니다.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㉞ 지녀야 한다.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념의 내부-외부에 대한 것도 변증법적이고, 이러한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을 활용해야 한다네요.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모든 것은 변증법으로". 6줄 분량이 한 마디로 정리됩니다.

또, 변증법적 체계성이 제시된 문장을 '나만의 말'로 바꾸면?
그냥 "정반합을 활용하자!" 정도겠네요.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⑥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나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정신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런 낯선 용어를 보고 떠올릴 '나만의 말'은?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 '정신'

이렇게 이해했더니 시험장에서 곧바로 암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네요.

'나만의 말'로 바꾸면? 직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표상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고,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입니다.

그럼 표상은 그냥 떠오르는 생각, 사유는 깊은 생각.

그러니 사유는 '진화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것도 '나만의 말'입니다. 이 지문은 진화론 지문이 아니니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형식 간의 차이로 (동일한)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앞에서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만의 말'로 바꾸면? "아는 만큼 보인다."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과거로 한정된다? 저는 여기서 '구석기 시대 동굴에 그려진 벽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틀리고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말이 틀리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가장 못 쓴 문장이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혜읍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평가원체'죠.

본질적, 유기적, 질적.

그냥 간단하게 바꾸면

각자의 고유한 성질이 사라지거나 섞여버리지 않고,

조화롭게 모여서(수렴적) 올라간 것(상향성을 가진 것)을 종합이라고 하는 거네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라는 표현은, (가)지문의 6줄짜리 문장처럼 (나)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말'로 바꾸면?

내가 이해했던 것을 '제3자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라.

그럼 완전히 주관적인 내 생각을 재객관화할 수 있겠네요.

철학의 주관성을 재객관화. '제3자의 시선'을 떠올렸으면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 배경 지식 활용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 공부의 핵심입니다.

배경 지식을 이용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경 지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지문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믿어야 하는 게 수험생의 의무입니다.

즉, 배경 지식 vs 지문에서, 배경 지식과 일치하는 지문의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문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국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답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지문이 다르다면, 본인의 지식이 틀렸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특히 법 지문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과 지문의 꼼꼼한 비교는 필수입니다.

헤겔 지문에서는 그렇다 할 배경 지식이 많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브레틴우즈 지문을 설명할 때 좀 유의미할 거 같네요.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소재이지만,

사실 한 번쯤 다들 변증법을 지문으로 접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변증법의 구조는, 정 - 반 - 합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증법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종합은 또다시 정립의 위치에서 또다른 반정립과 대립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종합은? 다시 정립의 위치에서 또다른 반정립과 대립하게 됩니다.

무한한 삼각형의 연속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걸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헤겔은 세계의 모든 것은 이러한 끊임 없는 변증법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고, 세상을 세 가지로만 보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은 지문을 푸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몰랐어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배경 지식일까요?

저는 항상 "모든 배경 지식은 아는 대로 다 끌어와야 한다."를 강조합니다.

배경 지식의 역할은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5) 한 문장 안에 제시된 개념어 파악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23학년도 6월 혈액 응고 지문은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와 '맥락상 동의어'로만 글이 쓰인 수준이었습니다.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이다."라는 것을 짚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여기서도,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다."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화 상태는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죠.

(6)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지문에서 뭔가를 놓치고, 당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강한 몰입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모든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읽어서는 효율적인 독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몰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문을 보면, **글쓴이는 변증법의 이론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될 부분이 있나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한국인이니까 한글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한 독서 방법입니다.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자.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 읽는 무게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아마 다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읽는 무게가 가벼워야 할 부분이 있고, 무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무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건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너무나 강한 몰입이 깨졌을 때 당황하는 이유도 모든 부분을 너무 무겁게만 읽기 때문**입니다. 과몰입 상태에서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이해한 후에 지문에 예시가 등장하면 이걸 읽을 필요가 없다. 같은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그럼 아예 읽지도 않고 패스하나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지문에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6번에서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읽는 무게를 가볍게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빠르게 읽어 나가면 좋겠죠. 이런 템포 조절들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I. 마치며

저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비문학에서 고생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요. 국어는 언제든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으로 밀어붙여도 쉽사리 오르기 힘든 과목입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저렇게 읽는 연습을 해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받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글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다음 국어 칼럼은 가능하다면

브레턴우즈 지문 - 현장 6분컷의 비결

처럼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글일 거 같습니다.

헤겔 지문으로 독법을 자세하게 다뤘다면 **브레턴우즈 지문을 갖고 쓰는 글은 오늘 이야기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칼럼**이 되겠네요. 오늘 칼럼도 실전적인 부분을 다루긴 했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분 간 브레턴우즈 지문에서의 사고 과정

- 2022학년도 수능 브레턴우즈 지문 ver.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원래 수학 칼럼을 쓰려고 하다가 브레턴우즈 지문 관련 칼럼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비문학 읽는 법 2편을 쓰게 되었네요.

이 글은 이전 칼럼의 내용이 체화되었을 때 얼마나 실전력이 극대화되는지 현장 6분컷의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는 독법별로 다뤘으니 이번에는 내용 순서대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칼럼 및 브레턴우즈 지문 전체 설명 영상 링크

: <https://youtu.be/1VKquveD2Ws>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 문장 하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이 되죠.

그럼 우리는 1달러만큼의 물건을 외국에 팔았을 때

1000원이 아닌 1200원을 받게 되니 수출하는 입장에서 좋겠네요.

또, 1달러를 갖고 싶을 때 1000원만 줘도 됐는데 1200원이나 줘야 한다는 건 원래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화폐가 안 좋아졌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상식에 가까운 배경지식 몇 가지(기축통화는 달러구나 등등)를 제외하면

저 한 문장으로 지문 전체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 2022학년도 수능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1)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가 갖는 구조적 모순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맨 처음에 기축 통화의 개념을 주고 시작하는데 이 역시 아는 내용이므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약간의 상식이 있었다면 "어? 달러화?"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지문에서 헤겔이 중요하듯, 트리핀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해야 할 겁니다. 트리핀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44개국이 모여 IMF 설립, IBRD 설립,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지정

이 세 가지를 합의했던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출발하죠.

IMF와 IBRD가 이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상관 없었지만 익숙함을 주었을 겁니다.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경상수지는 무역과 관련된 것, 흑자는 +, 적자는 -

특히 흑자 / 적자 개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상식에 가까운 배경 지식이에요.

그럼 수입 > 수출일 때 왜 적자일까요.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내가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드는 것보다, 외국한테서 댄 걸 사오느라 바깥으로 돈이 더 많이 나가는구나."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수출 > 수입이라면 흑자일 텐데

이번엔 반대로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드는 게 더 크니까 플러스겠네요.

(2) 트리핀 딜레마: 국제 유동성 확보 vs. 달러화의 신뢰도 확보

위에서 언급했던 경상 수지의 흑자 적자 개념이
기축 통화국인 미국에게 적용되면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미국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즉, 수출 > 수입을 유지한다면?

"미국이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안 사올 테니까 달러화가 바깥으로 안 풀리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배경 지식이 등장하는데, 어차피 밑에서 제공을 해준다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 있었겠죠.

유동성은 원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라는 뜻을 가지나,

국어 비문학 경제 지문에서도, 일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유동성 = 화폐, 돈의 맥락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적자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달러화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라 했으니

"국제 화폐 공급이 중단? 아 국제 화폐는 달러화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짐바브웨에 가서 원화로 물건을 살 수 없듯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폐가 세계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반대로 적자 상태를 허용한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니 달러화가 바깥으로 많이 풀리겠구나."

그럼 신뢰도가 저하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여기서 "이건 인플레이션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배경 지식이겠네요.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의 붕괴를 보고 떠올릴 생각은 뭘까요.

"아니 네이버 보면 어제는 1달러에 1100원인데 오늘 1110원이잖아.

이거 변동 환율 아님?"

맞습니다. 딜레마가 있으니 이후에 붕괴되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했을 테고.

나만의 말과 배경 지식의 적절한 활용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는 각각 위에 나온 말과 맥락상 동의 어겠네요

(3) 금 본위 체제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아까 주지 않았던 국제 유동성의 개념을 이제야 제시합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넘어가겠죠.

저는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까지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ㄱ을 주고 금 본위 체제를 제시하니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독서 공부법(2)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봤는데 ㄴ에 브레턴우즈 체제

체제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네요.

아까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이었는데?

관점을 수정해야죠.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화폐였구나.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가 유용했습니다.

각 국가의 통화 가치를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 그에 따라 환율 자동 결정.

일단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은지는 몰라도 환율 자체의 개념은 아실 겁니다.

"아, 1달러에 1200원 이런 거?"

그럼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를 활용해보겠습니다.

금 1개에 1달러라고 해볼까요. 그럼 제 머리 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 ---1달러

금 1개 | ---1000원

| ---100엔

이걸 1달러는 1132원이잖아! 이러지 말고 간결한 수치인 100, 500, 1000 등으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금 1개라는 말도, 그 가치가 1달러라는 말도 실제와 다른,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입니다. 왜 구체적이되 간결해야 할까요?

저렇게 각 국가가 금에 화살표를 꽂으니깐 각 국가끼리는 1:1000, 10:1, 1:100 순으로 세 가지 환율이 자동 결정되네요. 이렇게 간단하다면 글로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겠죠.

(4) 브레턴우즈 체제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금, 달러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받는 걸까요?

답이 어차피 아래에 제시되어 있지만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달러는 과거에 금 교환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즉, 달러화를 내고 정해진 양의 금을 받는 거였죠. 이후에 달러 != 금 교환권으로 변하고 나서도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전세계적인 사기극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아래를 읽어 보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금 환 본위제, 바꿀 환이니까 바꿔주나 보네요.

금 1온스와 35달러를 맞교환해준다는 조항을 보고, 저는 **관점을 수정**했습니다.

아까 분명 '신뢰도 저하'에서 인플레이션을 떠올렸지만

금 1온스를 35달러와 '언제나' 교환해준다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신뢰도 저하만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을 짚지 못해 11-1번 선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좀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니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는 달러 = 금 교환권이라는 의미이고, 달러화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다면 금이 아닌 달러화에 화살표를 꽂아야겠네요.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 ---1000원
금 1개 - 1달러 |
| ---100엔

그러면 달러화를 제외한 화폐들 간 관계는?
10:1로 교차 환율이 한 가지 자동 결정되네요.

(5)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달러화 과잉 공급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금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할지 말지 딜레마에 놓여 있던 미국에 결국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상 수지 적자가 점점 쌓여가고, 그에 따른 달러화 과잉 공급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금을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이지? 둘은 완전 반대인데?"

제가 환율을 설명할 때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결책을 살펴보면

1. 달러화의 가치를 직접 내리는 평가 절하
2.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평가 절상 -> 달러화의 가치 평가 절하

결국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네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환율이 오르면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으니 환율을 하락시키면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네요.

동전의 양면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나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11-1을 잘못 해설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경상 수지 적자인데 왜 달러화를 평가 절하하지?"

안 그래도 많이 풀린 달러인데 평가 절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금 태환 조항에서는 금 1온스를 '언제나' 35달러와 맞교환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35달러는 '언제나' 금 1온스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달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뢰도 하락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관점 수정'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달러의 절대량은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미국의 금 준비량은 정해져 있죠.

금 1개에 1달러인데, 100달러가 풀려버렸고, 내가 지금 가진 금은 1개라고 해볼까요.

왜 평가 절하를 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100달러에 상응하는 금 100개를 주는 건 불가능하니, 금 1개를 100달러로 올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죠.

달러는 무조건 정해진 양의 금을 교환해주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동일한 금 준비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평가 절하할 필요가 있네요.

(6) 닉슨 쇼크 -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위에서 해결책으로 달러화를 직/간접적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걸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규정상 직접 평가 절하는 안 됩니다.

남은 건 **여타국 통화를 평가 절상하여 간접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건데 **독일, 일본 등은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라서 평가 절상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이 수출 주도 국가였다는 것만 알았어도 충분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죠. 지문만 본다고 해도 대미 무역 흑자 상태라는 건, 미국 상대로 수출을 많이 했다는 뜻인 걸 짚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수출을 주로 했던 독일 일본은, 환율이 올라야 좋습니다.

그런데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하면 환율은 하락하죠.

"수출 주도인데 우리가 환율을 왜 내려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가 미국인데 니네가 어쩔건데 ㅋㅋ"

어차피 얼마 못 가 평가 절상될 것을 예상하고

독일과 일본의 화폐를 투기적으로 사들입니다.

환율은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죠. 오르면 수출이 좋고 내리면 수입이 좋으니.

하지만 화폐 자체를 사들인 사람은? 화폐 가치가 오르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네요.

이렇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문을 두드리고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멘탈 붕괴, 그리고 브레턴우즈 체제도 붕괴되었네요.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배경 지식을 떠올려볼 수 있죠.

닉슨 독트린(1969), 중국 방문(1972),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

전혀 지문 이해에는 도움 안 되는 배경 지식이었지만

1971년의 사태가 왜 '닉슨' 쇼크인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네요.

(7)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에도 기축 통화의 역할을 했던 달러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㉔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다고? 근데 지금은 왜 달러가 기축 통화지?"

달러가 금 교환권이 아니게 된 시점부터, 전 세계적인 사기극이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에 의존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였으니..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규모의 경제는 배경 지식이었지만 몰랐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우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의 경제는, '많이 생산해서 생산 단가 낮추기' 이 정도가 되려나요.

연필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장이 연필을 만드려면 1000원짜리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올해 4모의 영업고정비 개념이죠.)

그리고 그 설비로 연필 하나를 만드는 데 100원이 듭니다.

연필 1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100원. 생산 단가는 1100원.

연필 2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200원. 생산 단가는 600원.

연필 3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300원. 생산 단가는 433.333원.

많이 생산할수록 개당 비용이 줄어드네요.

규모의 경제를 나만의 말로 표현하면?'많이 생산해서 생산 단가 낮추기'.

이게 도대체 환율과 무슨 상관일까요?

| ---1달러

금 1개 | ---1000원

| ---100엔

아까 나왔던 이 구조와

| ---1000원

금 1개- 1달러 |

| ---100엔

이 구조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3가지 환율이 생기는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해 두 번째에는 1가지 교차 환율만 생기죠.

여기서는 3가지 / 1가지 정도지만, 고1 과정의 순열과 조합 파트를 떠올려본다면?

3C2 / 2C2

4C2 / 3C2

5C2 / 4C2

.
. .
.

처음에는 3가지 / 1가지였던 것이 6가지 / 3가지 -> 10가지 / 6가지 ...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죠. 전 세계 국가를 다 고려한다면 효율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과 학생이라면 이걸 떠올려보시면 되겠네요.

$$\lim_{n \rightarrow \infty} \left(\frac{n(n+1)}{2} - \frac{n(n-1)}{2} \right)$$

마지막으로, c의 경우는 뭐가요? 금은 없을 거고, 달러도 기축통화의 위치가 아니라면

- | ----1달러
- X | ----1000원
- | ----100엔

c은 c에서 금이 사라진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나만의 말입니다.

문제 풀이

10번의 정답은 트리핀이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될 것임을 예측했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1번도 쉽지 않았기에 11, 12, 13번 순으로 보겠습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 달러화는 정해진 양의 금과 동일한 가치였으므로 경상 수지가 누적됨에 따라 점점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을 겁니다. 닉슨 쇼크 이후 평가 절하가 가능해진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몰랐던 분들은 지문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선지에서는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가 중요했습니다.

금 1개	1달러	1000마르크
금 1개	1달러	500마르크
금 2개	2달러	1000마르크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된다는 것은 마르크화의 환율이 하락한다는 뜻이죠.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으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달러를 1000마르크가 아닌 500마르크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1000마르크로 돌리면? 이는 2달러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금 2개와 바꿀 수 있네요.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증가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3 = 3$**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1 = 1$**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3, 6, 10, 15...$**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3 < 1$**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1 < 3$**

역시 체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지문 설명에서

㉠은

		---	1달러
금 1개		---	1000원
		---	100엔

㉡은

		---	1000원
금 1개 - 1달러			
		---	100엔

㉢은

		---	1달러
X		---	1000원
		---	100엔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1. ㉠에서 자동 결정되는 환율 3가지.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 3.

2. ㉡이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가 여전히 기축 통화라면?

그냥 ㉡에서 금 1개 자리만 사라진 거죠.

즉, 변화가 없으니 교차 환율은 계속 1가지입니다.

3. 지난 칼럼에 나와 있지만, ㉢이든 아니든

국가 수를 하나씩 늘릴 때는 다른 국가와 연결을 각각 해줘야 합니다.

당장 ㉢에서 국가 수를 하나 늘릴 때 환율은 3가지가 늘어나네요.

4. ㉠의 환율 가짓수는 3, ㉡의 교차 환율 가짓수는 1이네요.

5. ㉡의 교차 환율 가짓수는 1, ㉢의 환율 가짓수는 3이네요.

13번은 문제 볼륨이 커서 <보기>와 선지를 나누겠습니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우선 보자마자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도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시문 자체는 생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세 감면 및 군비 증대로 인한 A국 금리 인상부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를 노린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화폐가 많아졌으니 **외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는 곧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고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경제 지문을 읽다 보면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비교적 자주 나오는데 알아뒀으면 좋았겠죠.

어쨌거나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으니, **다른 나라 환율을 내려서 미국의 환율을 높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B국(독일)과 C국(일본)의 환율을 낮춰버린 겁니다.

냉전 이야기, 경상 수지 적자 이야기 등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만 알면 될 듯합니다.

핵심은 B국과 C국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했다는 거겠네요.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준비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1. A국 통화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지문에서는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달러화 과잉 공급을 언급했었으니 외자 대량 유입은 내용 일치만 놓고 봐도 틀린 말입니다. A 대신 B를 주는 오답 논리는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2. B국의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B국 통화의 가치 상승

즉 A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3. 여기서도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가 빛을 발합니다.

B국과 C국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했다고 했으니 이렇게 되겠네요.

A	B	C
1달러	1000마르크	100엔
1달러	500마르크	70엔
2달러	1000마르크	140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보기>에서 봤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B국 통화와 C국 통화가 각각 50%, 30%씩 하락했으니

1000마르크는 500마르크가 되었고, 100엔은 70엔이 되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1000마르크로 원상 복귀시키면?

1000마르크는 140엔에 대응합니다.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은 100엔에서 140엔으로 상승한 겁니다.

4. 위에서 말한 것처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올랐다면?**

B국 상대로 하는 무역에서 C국의 경상 수지는 당연히 개선되었겠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한 문장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5. 이걸 실전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게,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완화 방안이 B국 통화의 환율 상승이어서는 안 됩니다.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을 좋게 만들어야 하니

A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켜야겠죠. 즉,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야 합니다.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된 게 아니라면 그건 그거대로 틀린 거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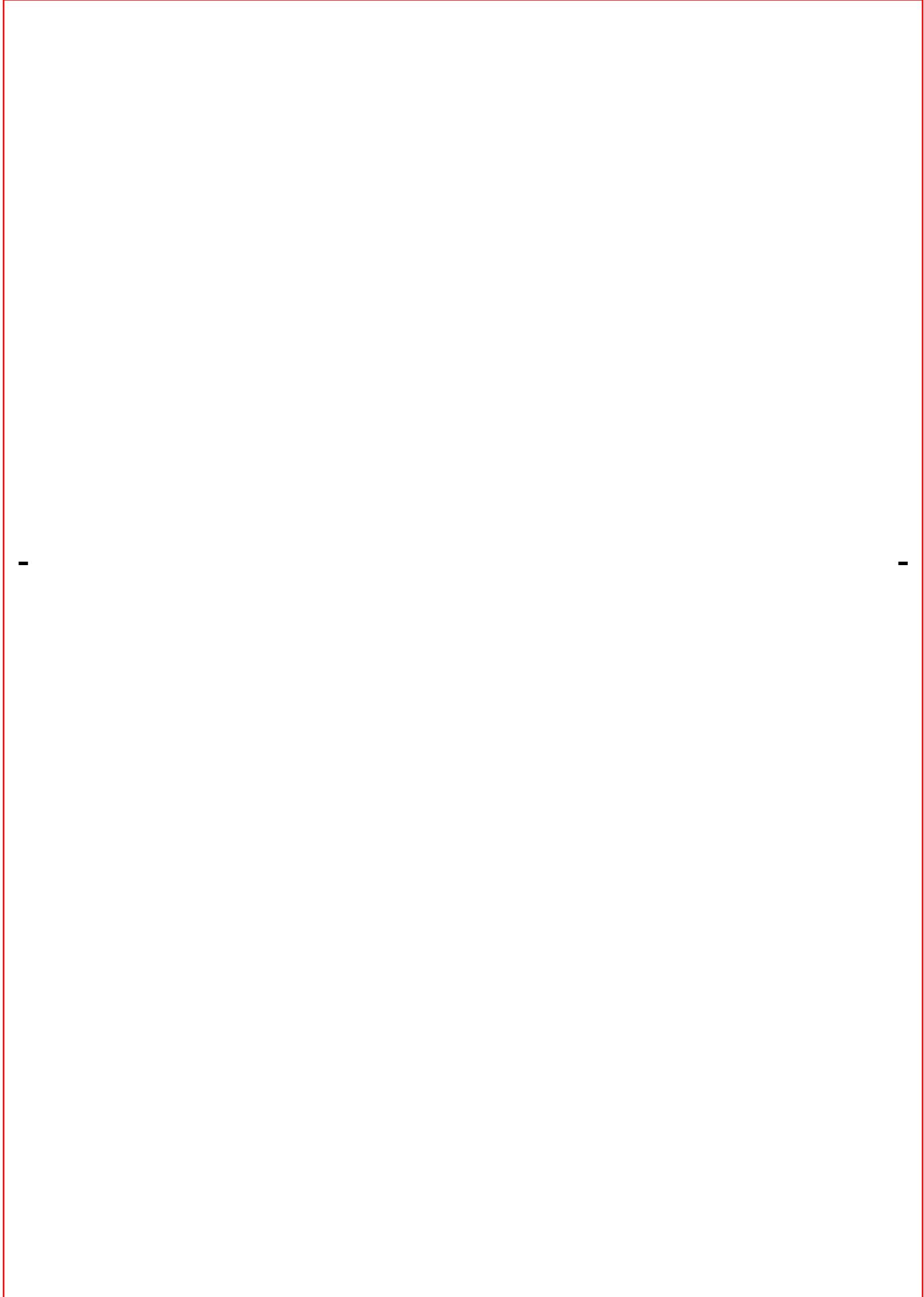
+ <보기>에서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니 A국 통화의 환율을 낮췄을 겁니다.

환율이 내리면 수입이 좋겠죠. 경상 수지는 악화되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편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 공부법(2)

-지문을 읽는 순간 문제는 이미 풀려 있어야 합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지난 국어 독서 공부법 칼럼에서는 하나의 독서 지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서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말해보려 합니다.

독서 공부법 첫 칼럼을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읽어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I. 문제 풀이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학생들을 보면, 항상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할 테고,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고3 때 들었던 인강에서도 '예측하기'를 먼저 한 후 지문을 봐야 한다고 가르치더군요.

하지만 이 방식은,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한 마디로, 학생들의 일반적인 풀이법은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저는 독서 파트 전부를 푸는데 보통 23~25분 정도가 걸리는데, 지문을 읽는데 대부분 시간을 쓰고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선지를 읽고 답을 고르는 시간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II. 지문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조금만 기출문제 분석을 해도 알게 될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낯선 것은 지문의 내용 뿐입니다. 늘 출제하던 패턴 그대로 다시 출제하고, 신유형이라는 것도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안다면,

문제 읽기 - 지문 보기 - 문제 풀기의 순서로 시험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문부터 보면 되겠죠. 이는 제가 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의 모든 파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나, 뭐가 나올지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암기 '될'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암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어떤 선지가 나올지 미리 알고 간다.' 정도가 되겠네요. **제시되는 선지까지 고정되어있는 파트는 화작 / 언매 / 문학(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만)**이기 때문에 독서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기출 문제에 나왔던 구체적인 발문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논지 전개 방식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동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문 전체에 관해서 묻는 문제로, 대부분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문제가 쉬운 걸 알면서도 빈번하게 틀린다면, 제가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던 '**과몰입**' 때문일 가능성이 큼니다. 너무 집중해서 읽은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나 심지어 활용 문제(3점 고난도 문제)도 맞히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의 전개 방식에 관해 물어볼 것을 알기에, 글을 읽으면서 **미리**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지, 즉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 세부 내용 일치 + 심화 이해

-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역시 독서 문제 중에서 쉬운 편입니다. 글의 내용과 선지를 매칭시키는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 일치 문제를 많이 틀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선지만큼은 **미리** 읽어 보고 가는 연습을 했던 거 같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에, 본인에게 맞는 풀이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내용 일치 문제 틀렸습니다.~~

(3) 소재 / 대상 / 구절에 대한 이해

-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의 가~다 중 CDS 프리미엄이 가장 큰 것은?, ㄱ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총 네 가지 예시가 있어 아래에 사진을 첨부합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15.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지겠군.
- 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④ ㉡과 실제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개별 소재와 대상에 대해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러 소재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는 ㉠~㉣과 같이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지문의 핵심 소재에 관해 물어볼 때는, 그 소재에 네모 칸을 쳐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나, 네모 표시가 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생각하며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견해 / 주장 / 기능 / 원리 등을 물을 수 있겠죠.

또한, 어떤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단락을 구분해두었다면, 그 구절 / 단락이 왜 나왔으며,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추측해보면서, 지문의 앞뒤 단락에서 이유를 미리 찾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4) 견해 / 기능 비교

-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지문에 나온 견해(기능)와 유사한 글을 <보기>로 제시하여 비교하거나, 지문 내에서 제시된 두 견해(기능)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출제되지 않아 다른 기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전 글에서 말했던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문을 읽고 나서, 만약 견해나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엇을 <보기>로 제시할지 대부분 짐작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제 예측이 거의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는데 형상과 질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렇다면 <보기>에는 플라톤이 나올 테고 이데아, 시물라크르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형상은 질료를 담는 그릇이다.’**, **‘이데아-현실-시물라크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물라크르는 가장 가치가 낮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운동론자의 견해가 <보기>로 제시될 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운동론자의 견해는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출제 요소로 적절합니다.

★스택

이번에는 기술 지문입니다. **스택**은 **선입후출(FILO)**, 즉 먼저 넣은 것이 나중에 나오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구가 하나뿐인 원형의 통에 탁구공을 차례대로 집어넣고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택이 제시되었다면, <보기>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선입선출(FIFO)**의 구조인 **‘큐’**에 대해 제시하겠죠. 스택과 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꼭 한 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문과지만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수학 수행평가 발표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계산기)으로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덕에 컴퓨터 관련 기술 지문만 나오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배경 지식과 같은 맥락이죠.

★데카르트

좀 더 넓은 범위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에 대해 말하는 **‘이원론자’**입니다. 그렇다면 <보기>에는 **이원론을 수용하는 다른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여 공통점 / 차이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원론을 부정하고 일원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학자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때도, 어떤 <보기>가 나올지 짐작하면서 읽어 나가야 문제를 보자마자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추가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퀴나스 세 사람이 말하는 이원론적 관점(영혼과 육체)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부아지에

마지막으로 순수 과학 분야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문에서 **라부아지에**가 **물질의 연소에서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하고 있다고 해볼까요. <보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매우 높은 확률로 **에른스트 슈탈의 플로지스톤설**을 제시하겠죠.

플로지스톤설이란, 연소에 대해 말할 때,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연소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론이었으나, 라부아지에가 산소의 역할을 역설하면서, 플로지스톤설은 적절하지 않은 이론임이 밝혀졌습니다.

대략 이 정도인데, 느끼는 바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내가 윤리와 사상을 배운 적이 있거나 좋아한다면,
위에 제시된 철학자의 논의는 매우 익숙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화학이라면? 라부아지에 이야기는 말 그대로 상식입니다.

컴퓨터를 좋아한다면 논리 연산자 문제나 저런 스택, 큐 같은 지문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화학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문과생이 라부아지에 문제를 본다면? 최상위권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은 읽기조차 싫을 겁니다.** 결국엔 짝는 거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어느 분야든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문에서 어떤 견해 / 기능이 제시되었을 때, 비교 대상을 떠올리면서 읽는다면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들은 **떠오르는 대로 고민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 평상시의 상식에 해당합니다.** 수능을 치기 전까지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 윗글을 읽은 후,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제시된 문제들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5)는 모든 지문을 통틀어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3점 고난도 문제로 많은 학생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지만, 수학 <보기> 3점(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독서 <보기> 3점(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문제가 가장 쉽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용 일치 / 과해석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한 마디 더 덧붙여서, 수학교 22번 문제가 본질만 놓고 보면 가장 쉽습니다. 다소 어이없으실 수 있으나 수학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견해/주장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ㄱ과 ㄴ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제가 고3이었던 2020학년도 평가원 시험부터 비중 있게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발췌 독해’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문 전반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4)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가)와 (나)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주제통합형 지문에서는, (가)의 입장에서 (나)의 견해를 이해 / 비판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한 이해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지문과 문제를 여러 번 번갈아 보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죠.**

지난 글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문을 외우자.”**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여기서 외우는 것은 영어 단어 암기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읽고 나서 지문을 안 보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출 문제와 N제로 반복 학습을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에, 지문으로 몇 번씩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험장에서 8~10분 만에 모든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학습방법의 차이입니다. 저 또한 헛갈리는 부분이 가끔 나오기는 하나, 몇 번씩 지문과 선지를 번갈아 보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딱 한 번만 지문을 훑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55분 내외로 모든 풀이를 마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서울대를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서울대생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7) 사전적 의미 / 적절하게 바꿔쓰기

-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포착(捕捉)한다
- ③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간주(看做)하면
- ⑤ ㉤: 결성(結成)되지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 ④ 물의 온도가 어는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뿐하다.

독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으나, 특이하게도 국어에 대한 슬럼프가 왔을 때 많은 학생이 이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후 정답을 맞혔다고 넘어가지 말고 해설지에 제시된 사전적 의미 등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어사전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제가 어릴 때도 국어사전을 읽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기본이었다고 하네요.

어차피 수능 국어에서 물어보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설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복습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면 국어사전을 매일 조금씩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독서에 출제되는 유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의 경우 올해 수능 독서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출제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비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신유형처럼 보이는 (6) 역시 (4)의 심화 유형일 뿐입니다. 독서에서는 위의 일곱 가지 틀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정해져 있다면 외워두고 수능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이에 더해 화작, 매체, 문학에서 출제되는 부분들도 한 번 쪽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모든 파트의 접근법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문의 내용이 바뀔 뿐,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선지조차 고정되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니, 나머지 분야에도 오늘 글의 내용을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II. 마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가능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꾸준히 그 방법으로 실력을 다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지금부터 접근 방식을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부터 보고, 지문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어차피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최근 10개년 기출 문제에 적용해본 후 일반화했던 것을 바탕으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제를 훑어보고 지문을 읽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지문 먼저 읽고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면, 수많은 연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글을 계획 없이 일단 생각나는 대로 쓴 후에, 간단한 점검만을 거치고 곧바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날 때 더 많은 분께 제 경험을 나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칼럼을 썼으면 좋겠는지 추천해주시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매번 다소 두서없을 수 있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

-

웬만하면 문학을 20분 내외로 푸는 법

-문제 유형과 지문의 출제 요소에 관하여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7.13

안녕하세요.

문학 풀이 시간 단축 관련 글을 정통으로 풀어 써보는 건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제는 다들 22수능의 악명을 잊어갈 때가 되어 큰 감흥은 없겠지만.. 저는 22수능을 현장에서 63분 만에 다 풀었던 걸로 처음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돌아가서(?) 잘못 푼 것은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0분을 줬어도 못 찾았을 거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아는 건 맞고 모르는 건 틀리되, 적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지는 않는 법'에 대해 써서 나름 좋은 평을 받았었는데, 문학도 써보겠습니다.

꼭 20분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21분이 되는 순간 칼럼 무효화..라면 안 되겠죠) 이 글의 목표는, "웬만한 수험생들에게 20분 언저리에 문학 풀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입니다. 글 읽는 속도가 유독 느린 학생이 있더라도, 시간 단축을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강, 독학, 학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문학 시간 단축만큼은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살짝만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중에는 뛰어난 강의, 좋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운 뒤 소위 말하는 '양치기'를 통해 '피지컬'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시간 단축을 시도하는데,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성이 없는 양치기의 경우 재능이 없는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100%라는 건 없기에 웬만하면 이라고 썼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모두 기계적으로 시간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즉, **재능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위권, 중위권 학생도 다 가르쳐봤는데 어떤 방식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간 단축을 위한 기반'을 먼저 다지고 그 방식을 체화하는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은, 독서 공부법 1, 2에 나와 있었던 것과 맥락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독특해서 관심을 받았었고, 이번 글의 주제인 '문학 20분 내외로 풀기'에서도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극단적 시간 단축 - 문학편의 핵심은 그냥 "뇌 빼고 읽은 후 답 고르기"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뭘에 집중해서 읽었길래 답인 거 같은 선지가 바로 보이지?"

"무슨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고, 더 나아가 지문의 어떤 부분을 물어볼지도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줄곧 강조했던.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방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문학을 1개 내외로 틀리는 실력**인데 정말 꼭 집어서 시간만 부족한 케이스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뒤 위에 언급한 극단적 시간 단축 - 문학편 칼럼을 읽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클 듯합니다.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orbi.kr/00058860465>)

상당히 긴 글이고, 이전 칼럼이 '실전' 문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문학의 전부를 담았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비문학 칼럼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든 문제 풀 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최근 기출 몇 개만이라도 다시 분석해보시면, **문학을 대하는 자세가 꽤나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제

나올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 - 라는 이야기를 모든 파트에 걸쳐 이야기했었지만, 실제로 자세히 썼던 건 비문학 관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써보려 하는 것이고, 문학에서의 대전제 역시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각 파트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문 장르별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지문이 아니라 문제가 먼저지? 싶으실 테니,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I. 지문을 읽는 순간 문제는 이미 풀려 있어야 한다.

제가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올렸던 비문학 글과 같은 제목입니다.

문제 풀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사실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글의 목적은 상위권의 암묵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는데, 굳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칼럼에서, 발문과 선지를 훑는데 지문당 30초~1분이면 되는데 그냥 읽고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학과 독서를 합해 총 8지문이 나오므로 그것만 최소 4분은 걸릴 테고, 이에 더해 문학 <보기>를 먼저 읽는 시간, 선택과목에서 문제를 먼저 읽는 시간까지 합치면 전체 시험 시간 중 6~7분은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미리 알고 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선택과목에서도 지문이 딸린 문제들은 지문부터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독서 공부법(2) 칼럼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독서 공부법(2) : <https://orbi.kr/00042931099>

링크의 칼럼에 나온 것처럼, 지난 10개년 기출을 분석하며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것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살짝 바뀌어서 나올지라도 기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다면, 지문을 읽으면서 포인트를 '미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큰 원인은 지문 보고 문제 보고, 다시 지문으로 갔다가 문제를 보는, 왔다갔다 하는 방식에 있는데, 이 과정을 상당히 많이 지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나면 왜 문학에서 시와 소설을 읽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같은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이해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항상 나오는 파트고, 문학 개념어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뒷받침되면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물어볼 것을 알기에, 작품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건 설의법이네, 이건 미완의 종결어미 사용이네."와 같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런 걸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입니다. 최종 목표는 언제나 "어?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라는 느낌만으로 확신하고 고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전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내용이 머리에 남아 있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그다음에는 기억은 나는 거 같은데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 기억은 나는 듯한 희미한 느낌이지만 그 느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필기하지 않고 가는 훈련이 중요하겠죠.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22.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굳이 이걸 추가한 이유는, '[A]'와 같이 단락을 주었을 때는 이게 정서를 묻는 건지, 표현상/서술상 특징을 묻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단락([B]로 제시되는 경우)과 비교할 지를 모두 생각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예시만 보더라도 [A]~[E]에 대한 단순 설명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2) 시어에 대한 이해

표현상/서술상 특징은 갈래복합에서 동시에 물을 수도 있지만, 시어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시에서만 나옵니다. 어쨌든 지문을 읽으면서 시어가 갖는 의미, 그리고 해당 시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뭔지 생각해야 합니다. 소설에서는 '구절에 대한 이해'라고 나오겠죠. (시에서도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하면 '시구에 대한 이해'도 포함됩니다. 소설은 시어가 없으니 구절만 물어볼 겁니다.)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하나만 물을 수도 있고

32. ㉠~㉣의 지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채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죽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를 주고 물을 수도 있죠. 보통은 저렇게 5개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아픈 가락' 문제의 경우 해당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모두 묻고 있지만, 방금 문제는 시적 기능을 묻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어의 의미와 기능은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 내용 일치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 ②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 ③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 주었다.
- ⑤ 생은 천상의 일에 빚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이건 크게 언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굳이 짚는다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용일치가 나온다.', '상식을 뒤집는 부분에 주목하라.' 정도일 텐데, 뭘 말하더라도 **내용 일치** 문제는 사실 우직하게 푸는 **파트**입니다. 저는 보기 문제보다 내용 일치 문제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저번 칼럼에도 나왔었지만, 이렇게 상식을 뒤집는 부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씨는 빌런이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았음)

(4) 인물의 특징 파악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주로 소설에서 등장합니다.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중심 인물을 놓고 서사가 전개되므로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걸 표현상/서술상 특징처럼 의식하고 갈 만하게 많지 않습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고 글 읽는 것에만 집중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 지금은 중심인물 위주로 소설을 이해해야 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듯합니다. (사실 이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5) 소재에 대한 이해

시에서 시어에 대한 이해가 나왔다면 소설, 수필에서는 소재에 대한 이해를 많이 물어봅니다.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겨릅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글쓴이는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글쓴이는 겨릅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문에서 네모 박스 쳐진 부분이 등장하면 그걸 나만의 말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의리 : 사람(군자)의 도리, 이욕 : 겨울에 대한 과한 욕심 정도로 정리해두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의리'에 대해 얘기하면 뭐 서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고 그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 의리는 군자가 지켜야 할 도리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사전에 나오기도 하나가요.

그에 더해, 위에 나온 문제처럼 2개에 네모를 치지 않고 1개로만 문제를 내면, 정답 특성의 원리로 답을 더 빠르게 고를 수 있겠죠.

(칼럼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상식을 뒤집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군자끼리는 서로 의리를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유도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상사공은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등장하는 건 비슷한/대립되는 소재를 ㉠, ㉡로 주고 비교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는 시어 비교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문제 역시 훨씬 더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숙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이 문제는 ㉠ : 계책, ㉡ : 방법이었는데 **사실상 둘 다 계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비슷한 단어에 밑줄을 주었으니, 독서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듯 **각각이 어떤 상황에서의 계책인지 미리 체크**하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만 밑줄을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지 말고 각각에 대해 미리 내용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걸 하나 보겠습니다.

29.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멧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 ④ ㉠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 ⑤ ㉠은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지문을 읽으면서 ㉠ : 정일의 분노, ㉡ : 아버지의 갈망과 같이 나만의 말로 정답을 미리 정해두고 가면 답이 4번인 게 바로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 ㉡의 경우 돌려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이런 식으로 고난도가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읽는 순간에 생각한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수준까지 웬만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돌려서 물어볼 것인지 예측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6)구절에 대한 이해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은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③ ㉢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④ ㉣은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은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1)에서 추가 설명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자면, [A]만 주는 경우에는 서술상 특징을 묻거나 작품 중 그 구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위 예시처럼 ㉠~㉣까지 쭉 제시한다면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구절을 ㉠과 ㉣로 주면? 뭔가 공통적/대립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역시 '정답 특성의 원리'가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7) 배경에 대한 이해

보통 시간의 흐름은 잘 쬐는데, 공간적 배경의 기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인물의 특징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배경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제, 그중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떠올려 보면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② ㉡과 ㉢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③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 ㉡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④ ㉡은 ㉠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 주는, ㉢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⑤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그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공간적 배경은 정서와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많이 활용되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설에서 시간 단축을 위한 몇 가지 문장을 남기라고 하면, **"공간적 배경은 작품 전반의 분위기와 인물의 정서에 조응하고, 그러한 분위기와 정서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물론 시간적 배경 역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을이 쓸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미리 체크하고 가야겠죠.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물론 이렇게 어떤 공간인지만 물어볼 수도 있으나, 쉽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 : 은신처, ㉡ : 바위틈으로 사실상 둘 다 '은신처'를 지칭하는 소재였기에, "애네는 둘 다 은신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은신처인가?"를 생각하고 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당연히 시에서도 배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일반적인 경우를 두고 서술하고 있지만, 잘 따져보시면 본질적으로는 시나 소설이나 물어보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하나 더, 이번 6월에는 이렇게 시간 표지를 넓게 묻는 문제가 나왔지만(평생, 만고 등도 물어봄),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독서 공부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변형이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8)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보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보기 문제' 칼럼에서 다루고 있어 유형 분류만 해두겠습니다. 또한, 보기 문제의 모든 오답 논리를 정리한 글을 따로 작성해야 할 정도이므로, 여기서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기출 분석이라 함은, 늘 반복되어 왔던 문제, 지문 구성 방식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던 예전 글과 같은 맥락입니다.

II. 장르별로 주목할 부분을 고려해 시간 단축하기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사실 첫 번째 파트만 알아도 웬만큼 실력이 완성된 학생들은 풀이 시간을 25분 안쪽으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첫 파트는 문제 유형에 대한 체화를 통해 시간 단축을 시도하는 거라면, 두 번째 파트는 수능 문학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알려주는 글이자, 편법이 아닌 정통으로 지문과 문제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글입니다.

지금 설명할 내용은 결국 첫 번째 파트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좀 더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시

요즘은 고전 시가에서 크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좋은 강의들과 자료들이 풍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고전 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떤 '클리셰'가 활용되었는가? 입니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나올 것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쪽 읽고 난 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세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은거했다는 이야기네."와 같이 큰 틀만 짚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가)

㉠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 십재 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A]

<제3수>

출(出)하면 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제8수>

이번 6월 모의고사에도 바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결국 속세(입신양명)를 버리고 강호에 머물겠다는 클리셰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십재황황(십년동안 열심히 충효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은 강호가 좋다! 이기 때문에, 첫 몇 줄만 읽고도 주제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랫부분을 안 가져오는 이유도 여차피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품들도 주제 파악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맞다고 대답할 텐데, 고전 시가를 제외하고는 주제를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말로 미리 설명을 해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 극단적 시간 단축-문학편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편법 위주로 설명해서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예측이 틀려도 좋으니 공부하면서 계속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리했던 것과 선지에서 묻는 것이 비슷하면 잘 한 거고, 다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묻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수정해주면 되니까요.

현대시의 경우 현대어로 쓰여 있어 고전 시가보다 쉬울 거 같지만, 대체로 현대시를 더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맨 처음에 썼던 **배경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쭉 써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정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짚기 힘든 학생도 **화자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들은 대체로 **배경과 맞물려 나타납니다.**

시공간적 배경은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어가는 장치이기에, **지배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짚고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세부적인 것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제를 정확히 짚지 못한 (그렇다고 가정한) 상태이므로, **상황이나 정서가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정서의 변화 역시 큰 틀에서의 주제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떠엄 떠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지내는 가지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제가 보기를 안 보고 풀 수 있다고 했던 22학년도 수능 현대시입니다.

다른 건 못 짚더라도 **상황과 정서가 변화한 건** 짚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없는 윗 부분에서 고향의 어두운 모습을 두고 시상을 시작하긴 했지만, 사진에 나온 부분에서는 최소한 **"낭만에서 암울함으로 상황이 옮겨가는구나."**만 짚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그게 주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전 고향의 봄은 낭만적**이었으나, (일제 강점기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이니깐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암울한 상황을 두고 기대하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과 같은 표현을 쓴다면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기 문제가 사실상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보기를 안 보고도 풀 수 있다고 했던 칼럼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상황과 정서만으로도 큰 틀에서의 느낌을 가져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되실 듯합니다.

시어나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역시 그 단락에서의 정서를 파악하고 있다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공통된/상반된 의미를 갖는 시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정답 특성의 원리'를 활용해 미리 선지를 짐작하고 갈 수도 있겠죠. 배경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원래부터 그러한 배경에 주목해서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또한 고전 시가를 포함하여, 시의 호흡이 긴 경우에는 종종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굳이 그 내용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는 것은 소설을 읽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전략을 정리하면

- 읽는 동안 머리 속으로 표현상 특징(설의법, 수미상관... 등)을 정리해두기
- 큰 틀에서의 정서,클리셰를 파악해두기 (고전 시가가 조금 더 수월함)
- 내용 이해가 안 되면대략적인 정서의 흐름이라도 파악해두기
- 배경이 제시되면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생각하기
- 상황/정서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주목하기

정도인데, 위의 다섯 가지는 필수라면 아래의 세 가지는 연습을 통해 이거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완벽하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시어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공통점/차이점 짚어보기
- 시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나만의 말로 대략적인 이야기를 기억/메모해두기
- 시간적 배경이 제시된다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도 파악해두기

시어, 시구와 관련된 것은 언제나 비슷한 사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긋고 내는 문제는 공통점/차이점을 묻거나 그걸 다른 말로 서술하면 어떤 건지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시보다도 소설 때문에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능 문학은 100%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설은 대체로 발췌된 부분이 출제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써보겠습니다.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설을 읽으며 드는 생각이 "뭘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면, 그건 결국 주제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소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물이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경은 저기에 왜 써놓았을까요? 일련의 사건이 펼쳐지는 특정 배경은 정서를 만들어 내고, 복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파트에 써두었던 것처럼 언제나 배경의 기능, 인물의 행동이 갖는 의미, 특정 사건 전후로 변화된 상황 등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말은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화 상황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전에는 저도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뭐?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적어도 수능 문학에서는 이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뭔가 배경 관련해서는 시와 비슷한 면이 많지 않나요? 초반부에 시와 소설을 읽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시에서도 대화가 제시되면 굳이 왜 대화를 넣었는지 주목해야 할 텐데, 그만큼 시와 소설을 바라보는 자세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대화 상황이 아니어도 소설에서는 핵심 내용을 빨리 잡아내는 데 **나만의 말이**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소설 자체는 호흡이 긴 편이지만, 일련의 내용을 한 마디로 줄여버리면 상당히 판단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①**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묻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의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②**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A]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이 소설이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왔다는 수험생이 많은데, 첫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산판알에 눈이 가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일은 '속물적이지 않고 싶어 하지만 결국 속물적인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짚고 이를 바탕으로 독해했다면 조금은 수월했을 겁니다.

정일이 용팔에게 '소인 놈'이라며 분노하는 장면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데, "정일은 속물적인 것을 아예 배척하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정일은 자신도 모르게 용팔이가 산판알 굴리는 거에 눈이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정일은 '속물적인 걸 싫어해봤자 자신도 결국에는 같은 부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웃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분부분 나만의 말로 정리해두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략을 정리하면

- 읽는 동안 머리 속으로 서술상 특징 정리해두기
- 인물의 행적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기
- 사건이 제시되면 그 속에서 인물이 뭘 하는지 파악하기, 사건 전후로 변화한 상황 파악하기
- 대화 상황 등이 갖는 의미(핵심 내용)나만의 말로 정리해두기
- 배경이 만들어내는 정서 파악하기
- 시간적 배경의 경우 해당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두기

정도입니다.

그에 더해, 고전 파트에서는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클리셰도 존재합니다. 영웅 군담 소설, 계모형 가정 소설, 천상 적당 모티프... 등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확히는 못 짚더라도 예를 들어 "위기 상황인데 조력자가 나오네? 영웅 일대기 느낌인가?"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 수필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극 파트는 낯선 느낌만 아니라면 크게 어려운 분야가 아닌데, 수필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21수능에서도, 22수능에서도 수필 파트는 많은 학생들은 좌절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트는 한 번만 생각을 정리하면 수월한 편입니다.

대전제는,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 이걸 쓴 거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필이 모두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능에는 웬만하면 교훈이 담긴 수필을 출제할 테니까요. 결국 글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교훈을 제시하는 파트에 주목하고 그 부분을 나만의 말로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역시 말로만 하면 너무 당연해 보이니 비교적 쉬운 예시를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겨릅*을 구해 오길 권하였다.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 보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절은 기와를**
[D] **쓰기에 겨릅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
보지 않았다.

겨릅을 구하러 가는 상황이 핵심인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의리를 해칠 거 같지는 않아서 구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중략)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
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
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E]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은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쪽 읽어 내려가면 예상과는 다르게 '의리를 해치는' 상황이 연출되고, 그 상황 속에서 작가는 인맥(상사공)을 이용해 어떻게든 겨릅을 구합니다. 결국 작가 자신도 이욕으로 인해 의리를 해친 거죠. '사적인 욕구 때문에 도리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경계'가 이 수필을 쓴 목적이겠네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되는 대로 읽어도 웬만해서는 주제를 잡을 수 있는데, 어렵게 나와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가는 연습을 하는 게 문제 풀이에도 좋지만, 평소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을 정리하면

- 내용이 어려우면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만이라도 파악하기
- 교훈이 곧 주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나만의 말로 바꿔두기

정도입니다. 여타 파트에 비해서 사실 전략이라고 할 게 별로 없네요.

시, 소설, 수필까지 쪽 보면서 눈치채실 분들은 채셨겠지만, 모든 내용을 무겁게 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단축됩니다. 이는 독서 공부법에서 설명했던 '읽는 무게 조절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독서는 웬만해서 소위 잉여 정보가 제시되지 않지만 문학은 걸러낼 부분이 꽤 많습니다. 즉, **문학에서 가볍게 읽을 부분, 무겁게 읽을 부분을 구분한다면 그 효과가 독서보다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짧은 시는 그나마 잉여 정보가 없는 편이지만 가사 또는 산문시, 소설이나 수필은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소설과 수필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첫 번째 파트만 체화하더라도, 역량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시간 단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적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억울하지는 말자는** 걸로 시작한 글인데, 독서에 이어 문학까지 완료했습니다. 정말 문학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에 더 강점이 있고 문학은 당연한 것만 떠오른다고 생각해서 글을 자주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어찌다 보니 문학 칼럼의 반응이 줄곧 좋았어서 작성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상위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글을 쓰고 보니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독서는 1, 2, 3편이 있는데 문학은 이거 하나로 정리하려다 보니 글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체화하는 데 평균적으로 2~4주 정도 걸리는 내용이니 차근차근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Fin. -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Fin.

-문학 보기에 관한 모든 것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7.22

안녕하세요.

드디어 문학 보기 문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Fin을 쓰니까 뭔가 진짜 마지막 같네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비문학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글로, 문학에서는 <보기>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글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비문학에 관련된 글은 이미 총정리해서 올렸지만, 문학에서는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보기 문제'라는 칼럼에서 단편적으로만 이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읽고도 풀 수 있다'가 핵심이지, 읽고 푸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글 제목을 파이널처럼 적긴 했지만 총정리라는 뜻에서 적은 거고, 아마 모의고사 때마다 종종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6모는 손풀이를 올려서 대체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맞힐 수 있는 표현상 / 서술상 특징이나 세부 내용일치와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즉 <보기>가 제시되는 문제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문학 고난도에 주로 보기 문제가 뽑히는 이유입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고민들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관점이 바뀌시리라 확신합니다.

I. 보기의 분류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보기 문제는 좀 더 정제된 말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부릅니다. 즉, 출제자가 주는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난 기출을 살펴 보면 이러한 **외적 준거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문학 전반에 대한 보기

말하자면 문학 개념어와 가까운 내용을 다루는 보기입니다. 대부분 개념 공부를 하면서 들어봤을 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읽으나 마나 원래 아는 내용에 가깝다고 해야겠네요.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최상에 따라 처벌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클리셰로 음모 모티프, 적강 모티프, 영웅 (일대기) 모티프 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음모자, 조력자가 어찌구 하는 것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학 전반에 대한 보기가 나올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시했을 뿐 이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지문에서 보기 내용대로 음모 모티프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중 몇 가지는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지문에 없는 특징을 보기랑 억지로 연결 짓는 '미스매칭'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내용 일치 선에서 정답 논리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답 논리 파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이건 아예 표현법과 그 효과를 써놓은 것으로, 진짜 날것 그대로의 문학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 읽었어도 그만인 내용이었죠.

(2) 작품 자체에 대한 보기

가장 많이 제시되는 건 역시 작품 자체에 대한 보기입니다. '이육사의「초가」는~', '「무성격자」의 정일은~'처럼 내용을 설명해주는 유형이죠. 이런 경우 텍스트 자체만 잘 독해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 보니 저는 역시 읽지 않는 편입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그러나 문학 전반에 대한 보기와 달리 부연 설명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학 전반에 대한 보기는 개념 공부로 미리 알고 갈 수 있다지만, 특정 작품을 미리 외워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낯선 작품을 두려워한다면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보고 가도 되고, 지문을 읽고 나서 보기에 맞춰서 독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저처럼 아예 안 보고 푸는 것도 여전히 가능할 겁니다. 결국에는 취향 차이지만, 문학 전반에 대한 보기는 웬만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도 이 유형은 훈련이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3) 블렌딩

블렌딩이란 말 그대로 문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작품 설명도 포함되어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뭔가 경계를 나누기 애매하죠. 두 번째 유형에서는 단순히 텍스트 독해만 잘 해도 되었지만 블렌딩 유형에서는 문학 개념어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보기를 안 읽어도 풀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 부분은 오답 논리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으나 시험당 1번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어부 모티프 역시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사실 '사대부에게 있어 어부는 생업으로써 낚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클리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가 어용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 이유죠.

그런데 거기에다 이러한 어부 모티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덧붙이며, 각 작품에 대한 개별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블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다들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문학 바깥의 보기

이건 솔직히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문학과 상당히 관련이 적은 내용을 보기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출제되었던 거 같은데 생각나는 건 딱 두 문제뿐이네요. 워낙 특이하다 보니 답에 대한 풀이도 써두겠습니다. 애초에 보기부터 낫설다 보니 답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를 훼손하는 보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대로입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C]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빨 건 빠고 과장할 것은 과장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겸재의 작품에 관한, 마치 비문학 인문 예술 지문 같은 보기가 등장했는데, 논리도 비문학의 일반적인 정답 논리인 '부정어에 주목하기'에서 나왔습니다.

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선지를 보면

- ④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대놓고 앞뒤 맥락에서 써주었기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 보기는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 연계로 출제된 무사와 악사였지만 전혀 생뚱맞은 내용을 가져왔던 느낌이었고, 보기조차 낯설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풀다가보다 상황에 맞춰 풀었던 거 같습니다. 역시 정답은 쉽게 나왔죠.

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선지를 보면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군.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은 쉽게 말해 ‘자신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일 텐데,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성취감이라는 ‘감정’과는 관련이 없을 겁니다.

II. 보기 문제의 본질

국어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문제 풀이에 있어 그나마 본질적인 접근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는 세 번째에 다룰 '보기 문제의 오답 논리' 와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보기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문의 내용을 출제자의 서술로 뒤집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따옴표(")로 나온 부분을 어떻게 왜곡하는지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문제에 따라 '~하는 장면에서는'과 같이 따옴표가 아닌 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문에 나온 부분을 찾아갔다가, 출제자의 서술을 다시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걸 6월 손풀이 때도 강조했던 내용이고,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 문제에 나온 선지들은 하나같이 괜찮았는데, 4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는 출사(입신양명)를 위해 노력하다 결국 은거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선지에서는 한가하였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 **십재 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A]

<제3수>

지문에 나온 부분을 찾아가 보면, 화자는 과거에 '십재황황'하였고(=한가지 않았고) 실제로 '한가하였'이 쓰인 부분은 '무심 어조는 절로 한가하였나니'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무심한 자연물이 그러하다는 의미이고, 화자 본인은 이제야 은거하게 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지문의 내용을 출제자의 서술로 완전히 뒤집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뇨

㉡ 십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5번 선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선지는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서술했지만 지문에는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념은 속세에 관한 것으로, 지문에서는 얼음 녹듯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를 출제자의 서술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다음 예시도 똑같습니다.

-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도무지 할 일 없어'가 출사하지 못한 것을 고민하는 상황을 나타낸 거라면, 저 구절은 말하자면 "출사하지 못해서 할 일도 없는 백수 신세네."와 같은 의미를 지녔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했지만..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
[B]
〕

<제13수>

지문에 나온 부분을 보면, 화자는 강호에서 할 일이 없어 달 아래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 **백수 신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백수가 된 거죠.**

위 세 가지 예시는 저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호와 속세를 대비하고 있으며 화자는 그중 강호를 택했다'라는 **작품의 주제만으로 거를 수 있는 선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고전 시가의 클리셰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출제자의 서술로 뒤집는다는 말이 이해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미개지에도 가자'가 터전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서부 개척 시대마냥 미개지를 개척해서 확장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출제자가 유도했겠지만..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지문으로 가보면

미개지로 가자고 해놓고 '돌아가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는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했던 과거(=미개지)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풀이도 마찬가지로일 겁니다. 이 시의 주제는 '물질 문명의 병폐 vs. 그에 비해 순수했던 과거, 그래서 과거를 지향'일 텐데, 그렇다면 터전을 확장하고 어쩌구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지문에 나온 부분은 '미개지에도 가자' 뿐이고, 터전을 확장한다는 건 출제자가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지문의 내용을 출제자의 서술로 뒤집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II. 보기 문제의 정답 논리

이 글의 서두에 예전 칼럼을 언급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문제는 내용 일치/과해석 선에서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건 큰 틀에서의 간단한 설명이고, 좀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1) 보기와의 미스매칭

글로도 여러 번 썼던, 내용 일치 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그냥 내용 일치라고 써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와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90%가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되고, 10% 정도가 과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미스매칭'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갖다 붙인 말이고, 이 유형은 보기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에게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지문을 보니, 노파가 계책을 알려주고 생이 이에 동조하며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 ㉠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그런데 선지를 보니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보기를 안 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용 일치 선에서 바로 적절하지 않다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기뻐하는데 무슨 내적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럼 이러한 선지 구성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보기를 보면, '신분적 한계를 지닌...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연결 지은 거죠.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댁 시비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그러나 저러한 보기의 내용은 위 지문에서 알 수 있듯 생이 사모하는 여인이 회산군 댁 시비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쓰인 것입니다. 즉, 보기와 지문의 내용이 서로 엇갈려 있죠. 이런 게 바로 보기와의 미스매칭입니다.

생은 노파의 계획에 기뻐하기만 하는데 내적 갈등이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문의 볼륨이 크니 바로 설명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무새 형겅이나 연어다가 알룩달룩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썩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걷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췍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당신께서 좋아하실 육보름 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는데, 육보름 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충만 훑어보더라도 화자가 회상하는 행복했던 과거입니다.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그런데 선지를 보면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이것도 완전 내용 일치 문제라서 도대체 왜 이런 선지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보기에서 양면성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이네요. 그런데 지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아직 썰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겉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지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위 사진처럼 양면성은 슬픔과 기쁨의 이야기를 같이 들려주는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과 글쓴이가 대비되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양면성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읽지 않거나, 혹은 읽었더라도 과몰입하지 않았다면 "또 헛소리하네 ㅋㅋ"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과몰입하게 되면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보기와 지문을 이상하게 연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2) 전체적인 설명, 발췌된 지문

이 유형도 크게 보면 (1)에 해당합니다.

보기에서 특정 장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던져준다고 해서 지문의 모든 내용이 항상 보기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설명 중 일부가 제외된 지문일 수도 있고, 애초에 예외적인 특징을 지닌 지문일 수도 있죠. 결국 없는 내용을 연결 지어서 선지를 구성해야 텐데, 그렇게 되면 역시 '미스매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에를 드나 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을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송이가 공청 내 필성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 표지' 정도가 될 겁니다. 지난 칼럼에서 시간 표지는 높은 확률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 밑줄까지 해주었으니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선지를 보면

- ③ ㉠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 아무리 살펴봐도 요약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필성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지점을 의미할 뿐이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했더니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보기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소설에서의 시간 표지가 갖는 전체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발췌된 파트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췌된 지문은 전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보기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3) 사고의 범주 왜곡하기 (과해석)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칼럼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orbi.kr/00062715728>

이 글을 읽으신 다음에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링크의 글은 주로, 큰 틀에서의 맥락이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적개심과 불안감은 모두 부정의 범주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 둘은 절대 같을 수 없다고 썼었죠.

지금 추가할 예시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어 여의려노

㉠을 보고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가난해서 한탄하는 상황'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면

③ ㉔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사대부의 죄책감까지 나옵니다. ㉔의 앞뒤 맥락을 살펴봐도 나와 있는 건 분명 단순한 한탄이었는데 책임이니 죄책감이니 이런 것들이 제시된다면 당연히 틀린 선지일 겁니다.

예전에도 썼었지만, **"가난하면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답 유도 방식들을 평가원 낚시 코드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범주가 단순히 '가난함'에만 제한되지 않고 '가난함으로 인한 책무 포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는 상황이죠.

위의 내용이 바로 '과해석'에 해당하며 "이건 너무 간 거 아닌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갔다'의 기준은 역시 기출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저런 유형들로 도배되어 있는 시험지가 주어진다면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선지 하나하나마다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6월의 경우에는 그런 유형들이 평소보다 약간 더 포진되어 있는 정도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어렵다고 느꼈었습니다.

(특새 홍보를 하자면 저희 모의고사에는 학생들이 6월 국어에서 낫설다고 느낀 정답 논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이미 나왔던 건데 어떤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논리인 것도 있습니다.)

IV. 보기 문제 학습에 대한 간단한 말

처음에 보기를 안 보고도 풀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심을 받았던 것 때문인지, 보기 제시문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문학 문제 풀이, 일반적인 공부, 그 무엇이든 <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계교재, N제, 모의고사 등에서 나오는 모든 보기는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나 일부 사설 콘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저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퀄리티가 낮다고 하더라도, 보기의 내용은 나오던 것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든 보기만큼은 꼼꼼히 복습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령 그게 작품 자체의 보기라고 해도 말이죠.

저는 수험생 때 문제 풀고 나서 한 번, 해설지 보고 나서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복습할 때 한 번 이렇게 보기를 총 세 번 복습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하려면 어렵지만 이렇게 보기 배경지식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언젠가 보기를 아예 안 읽거나, 읽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훑어내리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칼럼들을 읽어보신다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22수능 ver.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보기> 문제 (1)

[<https://orbi.kr/00043547747>]

22수능 ver.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보기> 문제 (2)

[<https://orbi.kr/00043589293>]

2306 ver.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https://orbi.kr/00057125689>]

2309 ver.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https://orbi.kr/00058260649>]

드디어 문학 관련 칼럼을 대부분 마무리지었네요. 저번에 따라서 읽으면 좋은 순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문학과 문학을 따로 선별하여 PDF를 올려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극단적 시간 단축

-문학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10.18

안녕하세요.

수능 전 마지막 이야기인, 문학 칼럼입니다.

파이널 기간이다 보니 국어 실력 자체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소 독특합니다.

이 글을 읽어서 도움을 받으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 말고
'내가 확신을 갖고 풀어서 틀린 문제'가 1~2개 내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 재고 풀면 잘 풀 수 있다! 하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학생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손가락 걸기'와 반대되는 느낌일 텐데
또 글을 읽다 보면 손가락 걸기와 같은 맥락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체화한 이후로 문학은 고정적으로 '20분 안에 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9모는 졸다 일어나는 바람에 15분 안에 풀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몰렸지만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I. 대전제

제가 이때까지 썼던 칼럼과 동일한 맥락일 거고
아마 독서 칼럼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의 문학 버전이라 보셔도 될 듯합니다.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미리' **생각한다는 의미**는 비문학과 동일합니다.

II. 뇌를 빼고 읽은 후 답을 곧바로 체크하자

대부분 수험생은, 문학에서 선지 판단을 할 때
"1번의 근거는~~~ 뭐 이 정도면 합당하네 오케이. 2번은.. ??
이거 좀 헛갈리는데? 세모.
3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아 그럼 답 3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을 겁니다.

말하자면 '정답이 될 가능성'을 따져 보고
이건 정답일 확률 10%, 이건 30%? 오 애는 70% 같네 이거다.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을 거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 3번이 정답인 거 같으면 4, 5번을 보지 않고 넘기는 소위
"손가락 걸기"를 활용하죠. 그러다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많았겠죠.

제가 활용하는 방식은, 손가락 걸기 같으면서도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히 뇌를 빼고, 즉 별도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빠르게 쪽
읽습니다. 읽은 후에 이런 게 있었나? /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싶은 걸 찾아서 '그
선지부터' 봅니다.

즉 이상함을 느꼈던 선지에 대한 근거를 찾은 후, 답을 곧바로 체크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 머리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면 지문 확인도 안 하고 체크하는 경우
도 많죠.

애초부터 저는 선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소현성록>입니다.

저는 지문을 읽으면서 "아니 악역인데 부끄러워 할 줄도 아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문제는 특이한 부분에서 나온다.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은 항상 잘 짚
자."라는 말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이 문제는 제가 '미리' 짚어놓은 부분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쭉 읽어 내린 후에 지문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답을 체크했습니다.

"손가락 걸기"와 다르게 모든 선지를 빠르게 훑어보고, 진짜 아닌 거 같은 선지 1개(혹은
2개)의 근거를 찾은 후 넘어갑니다. 그러니 좀 더 이상한 게 눈에 띈다면 1번만 보고 답
을 골랐는데 5번이 답이어서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확신을 가지고 체크
하면 잘 안 틀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되어야겠죠.

이게 엄청난 방법일까요?

이때까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했을 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모집했던 수업에서 문학 6~7개 틀리던 학생이 1개 아니면 안 틀리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니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은 아래에 상술할 문제별 전략까지도 체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 2022.11.18 추가 - 이 학생은 결국 수능 문학을 다 맞았습니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된 후에 유용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뇌 빼고 읽은 후

결국 몇 분이고 이전과 똑같이 선지 판단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도

"보다 더 안정적인 손가락 걸기"로는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쉬운 게 맞는데, 말씀드린 "뇌를 빼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쪽 읽어 내려가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선지 판단을 꼼꼼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끊어내는 데 저도 시간이 좀 걸렸었고, D-30인 시점에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주 내로는 그래도 보통 체화가 될 테니까요.

심지어 이 방법은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리스크도 없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원래대로 선지를 하나씩 읽고 판단하면서 가면 될 일입니다.

III. 유형별 전략

몇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1) 표현상, 서술상 특징

별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때까지 그렇게 시도할 생각을 안 했을 뿐일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건 대구, 이건 설의, 여긴 하강 이미지 나오고~~~" 등의 생각을 '미리' 해놓고 푸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을 미리 짚고 간다면 읽자마자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에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체화 이후에는 "아 그래 (가)랑 (나) 둘 다 비유가 있었지."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고르게 됩니다.

(2) 구절의 비교, 이해

'정답 특성의 원리'가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 남의 권력으로

“정중으루 가져와요?”

독서와 마찬가지로, ㄱ을 쥐 놓고 문제를 안 내면 평가원장이 사퇴해야겠죠.

저렇게 제시해주었으니, 무조건 구절 관련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절 간 비교 문제일지 아니면 구절 5개를 주고 이해를 요하는 문제일지는 알 수 없죠.

정답 특성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역시 나만의 말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에서 나만의 말은 생각보다 떠올리기 어렵지만 문학은 훨씬 쉽습니다.

저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 "남의 권력으로"

항상 간단하게 머리 속에 집어넣고 가기 때문에 매우 짧게 생각합니다.

"남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고 있다." 와 같이 길게 생각할 거면 문제 출제를 해야겠죠.

구절의 이해인 줄 알고 봤더니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베풀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 남의 권력으로

백 주사의 아들 ㉠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임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남의 권력으로' 아닌가요?

높은 확률로 구절 비교가 나올 거고,

제가 강조했던 대로 '정답 특정의 원리'를 활용하면 공통점에 대한 선지가 있어야겠죠.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애초부터 내고 싶었던 건 저 내용 하나뿐이었을 거고, 서술형으로 나와도 맞힐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독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유효합니다.

구절 이해인 줄 알았으나 ㉠까지 보고 나니

누가 봐도 구절 간 비교길래 역시 답 체크를 보자마자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구절 이해로 가볼까요.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 **별다른 방법 x**

a는 한 마디로 "별다른 방법 없음"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었다.** -> **일떨결에**
의표하며, 짐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 **예전과 비유적으로**

달라진 모습

b는 "일떨결에"

c는 "예전과 달라진 모습"

나오지 않았지만 저러한 '비유적 표현' 역시 자주 등장하죠.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듬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상대보다 열등 = 위축

-> 열반지만 상황이 별로라 탈주 불가

d는 "상대보다 별로니까 쫓았음"

e는 "화나는데 상황 상 탈주 x"

저는 저에게 익숙한 말로 내용을 정리하여 머리 속에 넣어 두거나
5글자 내외면 적어 두기도 합니다.

(체화해서 적지 않고도 대략 기억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적응만 된다면 적는 시간을 들일 정도의 일도 아니니까요.)

항상 간단하게 적으라 하면 문장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에서 그렇게 길게 적으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은 후, 선지와 비교해서 맞는 거 같으면 곧바로 거를 수 있겠죠.
a, b, c, d는 잘 짚었을 겁니다.

그럼 c에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냐? 그냥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만 썼을 텐데?

돌아가보면 아래 부분에서 백 주사는 방삼복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 c와 e는 맥락이 완전 뒤바뀌지 않는 이상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려야
한다는 확신도 얻었네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저는 e에서 기대감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풀 때도 못 짚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번이 말도 안 되니 넘어가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5번 선
지에 그런 게 있었냐? 하고 한 번만 돌아가 보면 그만입니다.

반감은 확실한데 기대감이 있었나?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라는 구절을 볼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하네요.

저는 이 방법으로 풀면

5개 선지 중 3~4개는 제가 짚은 대로 나옵니다. 운 좋으면 5개 다 생각대로 나옵니다.

처음 하면 1~2개밖에 못 할 수도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해서 5개 선지 중 곧바로 걸러낼 수 있는 선지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이는 기출이든 사설이든 동일합니다.

내가 헛갈리는 선지가 있을지언정, 답을 고르는 데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3) <보기> 문제

이 파트는 더 쉽습니다.

주제를 관통하는 식으로 문학을 출제한다는 다른 분들의 칼럼에 적극 동의하는 이유죠.

그냥 쪽 읽어 내린 후에

이질적인 선지 하나에 대한 내용만 본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주면 되니까요.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 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㉔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빠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위에 제시한 보라색 부분은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남편 미안" 이 정도겠죠.

(실제로 선지 옆에 그렇게 썼었습니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해당 부분이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거라면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하늘 같은 남편을 내가.."라는 생각을 하는, 아내자의 면모라고 봐야 할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쪽 읽어보고 4번이 이상하니 근거를 찾고, 답을 체크했습니다.

IV. 마치며

23수능 대비로 쓰는 칼럼은 이 글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왜 수정했냐면 갑자기 또 생각날 게 있을지도 모르니..)

잘 체화한다면,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건 몰라도 시간 부족으로 절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9개월 정도 활동한 거 같은데 벌써 또 수능이 다가왔네요.

마음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수능 국어 한 문제 더 맞힐 수도 있을 글

-상식을 뒤집는 선지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05.20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국어의 모든 파트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점수 못 올리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가능성을 논하는 듯한 어투로 썼지만, 실제로 이걸 알려주고 나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확신을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물론 98점이 100점 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1컷 이하의 학생 분들께는 나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체화 시간이 최대한 짧은 주제**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읽자마자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체화가 가능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6모 점수를 단기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도 좋지만, 사실 이 내용은 수능 날까지 가져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일 듯합니다. 좀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들은 이를 골라 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틀리고 나면 나중에 채점하고 나서도 "아니 뭐 이런 걸 틀렸지? 자꾸 실수해서 짜증 나네." 같은 생각만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수업에서 가르칠 때 상식을 비트는(?) 선지/진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단계별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제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한 것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난이도 : 쉬움)

이 정도 문제는 오히려 쉬워서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조차도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두 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헌법에서도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제시된 주권자는 말하자면 '대표로 설정된 한 명'**이고,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럼 저 한 명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지?" 같은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문제를 보면

10.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3번 선지를 보고, 얼핏 봤을 때 이상함을 못 느낀 경우가 꽤 있었을 듯합니다. 이 선지가 바로 주권재민을 풀어 써놓은 것이니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본문에 나온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대표 한 명'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6번 (난이도 : 중간)

이것도 그닥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지문이 모든 쉬워 보일 만한 요소를 다 짚어누른 쪽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틀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번 보겠습니다.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직관은 원래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감각적으로 직관이 들어와야 해" 같은 말에서 쓰이는 거 아니었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니까요. 즉 본문에 나온 직관의 정의는 상식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직관은 "감"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면, 지문에서 제시한 직관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직관하러 갔다 왔음."에서 쓰이는, 말 그대로 직. 관인 거죠. 그래서 지문을 읽고 나만의 말로 이해할 때도 직관 = 있는 그대로 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면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이 직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니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게 표상인지 사유인지 실전에서 헷갈렸다고 한들, 직관 =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 새로운 창작 기획과 같이 매칭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걸 못 짚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창작이란 영감을 얻으면 느낌이 팍 꽃혀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 예술은 직관의 영역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술은 직관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말에 활용된 직관의 뜻은, 말씀드렸듯 지문에서 준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을 뒤집는다는 게 뭘지 점점 이해되지 않나요?

이런 상식을 뒤집는 내용은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독서에서 더욱 그런데, 일단 그걸 보기 전에 문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체로 비문학에 비해 쉽지만 아마 유의미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난이도 : 쉬움)

내용 일치 문제라 당연히 쉬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제시된 부분만 대충 보더라도, 여씨는 상당한 빌런으로 설정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대목을 읽으면서 한 생각은, "아니 애는 뭐 악인이 부끄러워할 줄도 아나?"였습니다. 빌런이라면 적반하장의 면모를 보여줄 만도 한데 말이죠. 역시 상식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선지로 가보니 바로 정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경우라면, 시간 단축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면, 즉 **상식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게 낸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실전적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난이도 : 중간)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어차피 이 시기 정도면 작년 기출은 풀어보셨을 테지만 줄거리를 대략 알려드리면, 주인공은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산책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나온 이후로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맛보게 되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저 통증은 '자유에 대한 갈망' 정도로 보는 게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살펴보면 '공리적인', '변질' 이런 데 볼드체가 들어가 있죠. 줄곧 칼럼으로 써왔던 <보기> 문제에 대한 관점을 떠올리고 이 글과 연결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리적인 치료가 변질된 걸 부정적인 것처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짚을 만했습니다.

"변질은 상식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긍정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대놓고 낚시를 하고 있죠.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는 걸 안다면, 이 정도는 가볍게 비웃어주면서(?) 나는 낚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정답 선지라고 체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연이고, 사후적일까요? 제가 썼던 글을 읽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사후적인 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나온다! 라는 말은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올 만한데?**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21번 (난이도 : 쉬움)

바로 앞 문제에 비해 이걸 학생들이 되게 잘 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3수능 문학이 쉬웠던 만큼 틀린 학생도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바로 보겠습니다.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들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

사진에 제시된 부분은 이별했던 두 인물이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피눈물과 관련된 것에 볼드체가 들어가 있으니, "보통 기쁘다고 피눈물까지 흘리나? 피눈물은 상식적으로 적개심, 증오, 복수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니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선지를 보면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이 문제의 경우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에 두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뒤집는 내용을 이렇게 널 만하다는 걸 미리 짚으면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주인공은 장인/장모의 생사를 모른다는 문제를 확인하게 되나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으니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겠네요.

문학에서도 이렇게 상식을 뒤집는 선지를 미리 짐작해보는 훈련은 유용합니다. 첫 번째 내용 일치 문제에 비해 심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의식만 하고 있으면 바로 체화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고난도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중상위권 이하 학생 분들께만 유용하고 상위권에게는 당연한 얘기였을 수 있으나, 이제부터는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에게도 유의미할** 듯합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걸 진득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17번 (난이도 : 최상)

이다음 문제로 다룰 2020학년도 6월 세포 내 공생설 지문의 문제와 더불어 10%대 정답률이 찍혔던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상식을 뒤집는 진술이 나와 있었고, 오히려 맞힌 학생 입장에서는 쉬운데 정답률이 왜 이러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들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지문 분석 칼럼이 아니니 간단하게만 이해시켜드리고 넘어가면, L-그래프라는 건 결국 "직선에 올 수 없는, 곡선에 있어야 할 것을 직선으로 편입시키는 그래프"입니다. 일단 지문을 보면 증가율이 다를 경우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학이지만 쉬운 내용이니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선 $y = 2x$ 는 x 가 1 증가할 때 y 가 2 증가합니다. y 의 증가량 / x 의 증가량 =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아주 쉬운 수학 내용이니, $2/1$ 라서 기울기는 2입니다. 이 직선에서 x 가 1 증가하던 게 두 배가 되면, y 도 2 증가하던 게 두 배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2/1$ 이나 $4/2$ 나 기울기는 똑같이 2니까요. 직선에서는 항상 일정하지 않나요? x 가 세 배 증가해도, y 도 똑같이 세 배 증가하여 $6/3 = 2$ 로 역시나 기울기는 2입니다. **다시 말해 증가율이 같은 것들끼리 모으면 한 직선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증가율이 같으면 직선 분포인데, 만약 각각 1에서 출발했는데 x 는 2배씩 커지고 y 는 3배씩 커지면 어떤가요? (1,1) (2,3) (4, 9) (8, 27)... 과 같이 가겠죠. 이걸 직선일 수가 없습니다. **두 증가량이 계속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직선이 되려면 예를 들어 한 쪽이 1씩 증가할 때마다 다른 하나는 계속 2씩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곡선 분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L-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말을 읽고 "여기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율/증가율인가?"라는 의심을 할 만하지만, 실전에서는 어째서?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기에 조금 더 읽어봐야 합니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이 내용을 보면 확실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율/증가율이 맞네요. 여기서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등장한 거죠. "아니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량/증가량이잖아. 근데 뭘 증가율/증가율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그스케일이 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걸 상식을 뒤집어도 너무 뒤집는 내용** 아닌가요?

문제를 보면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 ①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 합은 더 작겠군.
- ③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렇게 가져왔는데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a: 게딱지 폭, b : 큰 집게발의 길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 2/3쯤으로 해볼까요?

그럼 a의 증가율은 3이고 b의 증가율은 2입니다. 즉, a는 3배씩 증가하고 b는 2배씩 증가합니다. 똑같이 1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1, 1) (3, 2) (9, 4) (27, 8)...처럼 되어버리죠. 그럼 증가'율'이 3 : 2로 일정하게 비례하는 것이지 증가'량', 즉 각각의 값 자체가 일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선지를 찾는 문제였으니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 설명을 보고 나니, "아니,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으면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 둘 다 증가하는 것 자체도 비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사진을 앞쪽에 너무 많이 쓸 수 없어서 여기에서 설명하지만, 역시 상식을 뒤집는 내용 때문에 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에는 없지만 글을 읽다 보면 "지문에서의 비례 = 일정하게 비례구나!"라는 걸 짚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상식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고, 증가할 때 같이 증가, 감소할 때 같이 감소 이렇게만 되어도 상식적으로는 비례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는 분명 지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완전히 갈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많이들 3번을 골랐지만, 3번은 보기에서 L-그래프를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걸러지는 선지였습니다.

위로 올려보시면 선지 사진과 보기 내용이 같이 보이도록 잘라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내용은 이보다 간단하지만,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이것보다도 높았다고 느꼈던 문제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번 (난이도 : 최상+)

이 지문의 주제는 세포 내 공생설인데, 말 그대로 공생 관계가 세포 안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일단은 넘어가고, 제시된 부분을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

빨간색 부분을 먼저 보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정확하게 뭔지 못 짚어도, **어쨌거나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공생 관계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에 제시되는 세포 소기관 관계 같은 거야 당연히 떨어져 살 수 없다고 해도 납득이 됩니다. 소기관은 안에 포함되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공생 관계 중에 떨어져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단니, 이건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 아닌가요?

말하자면 악어가 죽을 때 악어새도 같이 죽는다는 소리인데, 당연히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특이하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상식이 뒤집힌 것이니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악어새와 관련하여 알려진 상리 공생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둘은 공생 관계가 아닌 게 밝혀졌고 저도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파란색 내용을 나만의 말로 정리해본다면 "세포 소기관 관계는 대장이 복제할 때 부하도 같이 복제가 되는 구조네." 정도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첫 번째 복어 케이스는 손쉽게 공생 관계인 걸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메바 케이스를 보니

대장 따라 증식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증식 가능하다고 제시했으니 이건 독자적인 거고, 그러니 공생 관계임을 알겠는데, 그럼 "죽으면 같이 죽는다? 이걸 세포 소기관 관계 아니야?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공생이랑 세포 소기관이랑 동시에 존재한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상식을 뒤집는 내용을 기억해줬다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건 공생이든 세포 소기관이든 가능한 거잖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살짝 홍보를 하면 저희 모의고사에도 이 논리가 쓰인 부분이 시즌1 2회에 등장합니다. 마치 두 케이스 둘 다에 해당하는 것처럼 써놓았지만, 사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 근거가 될 수 없는 식으로 말이죠.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건 공생이든 세포 소기관이든 다 가능하다는 점을 짚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어쨌거나 문제를 보면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사실 이걸 늘 강조하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가 나온 문제입니다. 1번과 5번은 정반대에 서 있는 선지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아야 했으니 정답이 1번인 게 분명했지만, 대다수가 5번을 골랐다는 건 그만큼 난도 높은 문제였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7가지 예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단일 주제를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 써본 것은 처음이네요. 스스로 가장 애정하는 제 칼럼은 비문학 독법에 관한 글이지만, 그런 건 강의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단일 주제지만 이전 칼럼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큼 중요한 글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걸 제대로 체화한 학생은 어쩌면 백분위 앞 자리가 바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백분위 100에서 90대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의고사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저런 부분이 제시되면 문제화될 수밖에 없어서 잘 기억해두시면 쓸모가 있을 듯합니다.

정말 긴 글이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